

심층분석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2026.03.31

1 장. 산업 분석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식품산업은 농축산물 등 1 차 원재료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생활필수재 산업**입니다. 넓게는 식품 제조, 농수축산, 유통, 외식까지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가공식품 제조업**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식품 제조업은 쌀·밀 등 곡물, 축산물 등을 원료로 다양한 **식품(조미료, 음료, 가공육, 간편식 등)**을 만들어내며, **원료 조달 → 제조/가공 → 유통/판매**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제조사는 자체 R&D 와 브랜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사는 마트·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관리합니다. **식품 수요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나, 품목별로 경쟁 강도와 진입장벽 차이가 큼니다. 예컨대 **제과·음료·유가공** 부문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브랜드 구축이 필요해 **상위 몇 개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반면, **육가공·수산물 가공**은 상대적으로 단순 공정으로 **중소업체 다수 경쟁**하는 구조입니다[2][3].

1.2 시장 규모와 성장률: 2025 년 전 세계 식품·음료 시장 규모는 약 **9 조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약 **+7% 성장**이 전망됩니다[4]. 국내 시장은 인구증가 정체 등으로 **저성장** 기조지만, **가정간편식(HMR)** 등 일부 가공식품 분야는 높은 성장세를 보입니다[5]. 실제로 최근 10 년간 국내 가공식품 생산액 연평균 성장률은 **6.5%**로, 전체 식품 생산 성장률(4.3%)을 웃돌았습니다[6].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편의식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매출 상위권을 보면 **CJ 제일제당**이 2022 년 연결기준 약 **18.8 조 원**으로 압도적 1 위이고[7], 그 뒤로 대상, 동원 F&B, 현대그린푸드 등이 **4 조 원** 내외로 2~4 위를 차지합니다[8]. 오뚜기, 농심, 롯데제과(롯데웰푸드), SPC 삼립 등도 **3 조 원대 매출**로 "3 조 클럽"에 속하며 치열한 2 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9]. 즉, 국내 식품시장은 **1강(CJ)과 다수의 2위권 기업** 구도로 요약되며, 상위 8개사가 모두 연매출 3조 원을 넘겨 **대기업 주도 시장**임을 보여줍니다[10].

1.3 최근 3~5 년 주요 트렌드: 식품산업은 최근 **디지털 전환, 소비 트렌드 변화, 규제 강화** 등의 흐름 속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① 온라인·디지털 전환:** 식품 구매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했습니다. 신선식품과 밀키트까지 이커머스에서 주문하는 것이 보편화되며, 새벽배송·당일배송 등 **물류 혁신**이 일상화되었습니다[11]. 이에 반해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는 매장 축소와 방문객 감소로 **유통 채널 재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되며, 온·오프라인의 **옴니채널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11]. 제조사들도 D2C(Direct to Consumer) 온라인몰을 운영하거나,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J 제일제당도 자사몰 'CJ 더마켓'에 콘텐츠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디지털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12].

- ㉔ **소비 트렌드: 건강과 간편함:** 인구 고령화와 웰빙 열풍으로 **저당·저염·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가정 내 식사 비중 증가와 맞물려 **HMR/밀키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식품 기업들은 **프리미엄 간편식**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SNS 에서 인기 셰프나 인플루언서가 론칭한 **푸드 스타트업 브랜드**가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셀럽 마케팅**은 협찬 표기 누락, 리뷰 조작 등 **윤리성 이슈**도 동반하여 브랜드 신뢰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13]. 한편, K-POP 등 한류 영향으로 전세계에 **K-푸드 열풍**이 불면서 한국 식품이 글로벌 mainstream 으로 부상한 점도 트렌드입니다[14]. 김치, 라면, 양념류, 만두 등 한국 식품들이 해외 유통망에 적극 편입되고, 각국 현지화 제품도 나오며 **식문화 수출**이 활발합니다[14].
- ㉕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비용 압박:** 최근 몇 년 간 곡물, 식용유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급등으로 식품 제조원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제조사들은 판매가 인상으로 대응했으나, 소비 침체 상황에서 가격 전가에는 한계가 있어 **수익성 압박**을 받았습니다[15]. 2022~2023 년에 주요 식품업체들이 매출은 성장해도 영업이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던 배경입니다[16].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들과 가격자제 협의를 하는 등 **대외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 기조로 전환하며 비용 절감, 포트폴리오 조정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16].
- ㉖ **규제 변화와 식품안전:** 소비자의 **안전·윤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식품위생 사고와 표시제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 년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와 일부 가공식품 이물 논란이 발생하여, **HACCP 관리 강화**와 제조공정 교차오염 방지 대책이 대두되었습니다[17]. 또 '무첨가', '제로' 같은 마케팅 문구 남발로 논란이 커지자, **2026 년부터 감미료 종류·사용량 및 열량 표기 의무화** 등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17]. ESG 트렌드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탄소배출 저감 요구도 늘어 **친환경 패키징** 투자가 필요해졌습니다[18]. 기업 평판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나 노동 이슈(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갈등 등)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19].

1.4 가치사슬 구조와 수익 지점: 식품산업의 가치사슬은 ㉑원재료 생산 → ㉒식품 제조/가공 → ㉓유통/판매 → ㉔소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단계에서는 농가·축산업자가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식품사가 구매합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식품기업이 이러한 원재료를 가공(세척, 살균, 혼합, 조리, 포장 등)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유통사를 통해 마트, 편의점, 식자재 유통, 외식업체 등에 공급되고 최종 소비자에 도달합니다. **부가가치와 마진은 주로 브랜드를 쥔 제조사에서 크게 발생**하며, 특히 R&D 와 마케팅으로 차별화된 제품일수록 제조사가 높은 마진을 확보합니다. 대형 유통채널(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자체 PB 상품 출시 등으로 일부 제조 마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은

원재료 공급자보다 제조사가, 제조사보다 유통·브랜드 오너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의 물류·폐기 비용이 높아 유통사가 영향력이 크고, 일부 가공식품도 대형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래조건 협상에서 유통사가 우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제조사가 직접 D2C 판매 비중을 늘려 **자사물 이익**을 키우거나, 편의점 등과 협업해 **신제품 판촉**에 나서는 등 가치사슬상의 **채널 파트너십** 전략도 중요해졌습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구도: 앞서 언급했듯 국내 가공식품 시장은 **CJ 제일제당의 독주** 속에 다수의 중견 식품기업들이 경쟁하는 형태입니다[10]. CJ 제일제당이 종합식품 1 위 기업으로서 가공식품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고, **오뚜기, 농심, 대상, 동원 F&B,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등이 각자의 강점을 가진 분야를 바탕으로 2 위권 경쟁을 펼칩니다[20]. 가령 **오뚜기**는 즉석식품, 소스, 라면 등 **가정식 대체식품**에 강점이 있고, **농심**은 라면과 스낵 분야에서 독보적 1 위입니다. **대상**은 장류(종가집, 청정원 브랜드)와 소재사업(전분당 등)에 강하며 글로벌 김치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21]. **동원 F&B**는 참치통조림 등 수산가공으로 출발해 HMR 과 유가공(덴마크우유 인수)으로 확장했고, **롯데웰푸드**는 2023 년 롯데푸드와 롯데제과 합병으로 탄생하여 제과(과자·초콜릿)부터 육가공, 아이스크림 등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22]. 이밖에 **SPC 삼립(제빵), 풀무원(두부·샐러드 등 신선건강식), 삼양식품(라면), 해태제과, 샘표식품** 등 특화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국내 경쟁은 대체로 **카테고리별 1~2 위 기업이 높은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중소기업들은 틈새 시장이나 OEM 등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슬레, 유니레버, 펩시코, 크래프트하인즈, 다논** 등 다국적 식품사들이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력으로 전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합니다. 한국의 CJ 제일제당도 최근 미국 슈완스 인수 등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전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매출 규모나 글로벌 현지 인프라는 아직 선두 다국적사 대비 작은 편입니다. 다만 **한식의 차별화된 매력과 한류 확산**을 무기로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국내 식품업계 매출 상위 8개 기업 매출 규모 비교 (단위: 억 원)[9]. CJ제일제당이 18 조 7,794 억 원으로 압도적 1 위이며, 2~4 위는 대상, 동원 F&B, 현대그린푸드 (각 3 조~4 조 원대) 순이다. 이밖에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오뚜기, 농심, SPC삼립 등이 3 조 원대 매출로 뒤를 이었다.

2장. 경쟁사 및 회사 포지셔닝

2.1 주요 경쟁사 비교 (제품 포트폴리오 및 비즈니스 모델): CJ 제일제당과 경쟁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강약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 **오뚜기: 즉석식품과 조미소스 분야 강자입니다.** 카레, 즉석밥(오뚜기밥), 라면(진라면) 등 가정식 대체품을 폭넓게 보유하고, **“착한기업” 이미지**로 충성고객이 많습니다. 연구개발보다 **빠른 팔로워 전략**에 능해 시장 트렌드 대응력이 높으나, 글로벌 사업은 미흡합니다 (수출은 하지만 현지 법인화나 대형 M&A 사례는 적음). 내수 시장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진출한 거의 모든 HMR 카테고리에 오뚜기도 경쟁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가격 대비 품질로 **가성비 전략**을 취합니다.
- **농심: 라면·스낵 분야 독보적 1 위** 기업으로, 신라면 브랜드의 세계적 성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건라면, 용기면 등 혁신과 미국 공장 증설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라면과 스낵에 집중되어 **카테고리 다각화가 제한적**이고, 국내 라면시장 포화로 성장 정체 이슈가 있습니다. 제조 경쟁력(대량생산 효율)은 뛰어나나, 가정간편식이나 소스 등 신규 분야에서는 CJ 제일제당 등에 후발주자로 따라붙는 형국입니다.
- **대상: 종합식품사로** 장류(된장, 고추장 등)와 **발효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청정원’ 브랜드로 소스·양념 시장 점유율이 높고, ‘종가집’ 브랜드로 김치 1 위입니다. 또한 전분당, 라이신(아미노산) 등 **B2B 식품소재 사업** 비중이 커 CJ 제일제당 BIO 부문과 일부 겹칩니다. 강점은 전통 식품 R&D 와 소재 기술이며, 약점은 B2C 히트상품 부재와 브랜드 파워가 CJ 에 비해 약하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최근 **해외 김치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 **고부가 식품소재 개발**에 집중하는 등 사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1].
- **동원 F&B: 수산·단백질 식품 전문기업**으로, 참치캔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유제품(세 가지 맛 추잉치즈 등), HMR(비비드키친) 등으로 확장했으며, 외식사업(한식 프랜차이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nd-to-End 밸류체인**(원양어선→가공→유통)을 갖춘 수산 분야가 강점이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식시장 회복** 수혜로 B2B 식자재 공급에서도 성장했습니다[23]. 다만 제품 포트폴리오가 단백질 식품에 치우쳐 있고 브랜드력이 CJ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비전은 **종합단백질 식품기업**으로 헬스케어 푸드 등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롯데웰푸드 (구 롯데제과):** 2023 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으로 탄생한 **롯데그룹 식품계열사**입니다. 초콜릿, 빙과, 제과 분야에서 오리온 등과 함께 국내 Top 이며, 이번 합병으로 육가공(햄, 소시지)과 유제품, 즉석밥 등까지 품목을 늘렸습니다[24]. 그룹 계열사 지원(유통채널, 자금조달 등)이 강점이고, 약점은 합병 초기라 **시너지 창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간편식, 냉동식품 등 **HMR 확대와 브랜드 리뉴얼**을 추진 중이고, 사명을 ‘롯데웰푸드’로 변경하며 **건강지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22].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이들 외에도 **SPC 삼립**(베이커리 제조 1 위, 파리바게뜨 계열)이나 **풀무원**(두부·샐러드 등 신선식품과 미국 두부시장 개척) 등 특화기업들이 있습니다. 풀무원은 “**로하스(LOHAS)**” 건강지향 브랜드로 차별화되어 있고, SPC 삼립은 모기업(파리크라상)과 시너지가 특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세계 최대 식품사는 매출 100 조 원대의 **네슬레(Nestlé)**로서, 커피, 베이비푸드, 초콜릿 등 글로벌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로그, 몬델레즈, 마르스** 등도 각 분야 세계 1~2 위 플레이어들입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한국 식품사는 규모 면에서 작지만, **발효기술**(CJ 제일제당 BIO, 대상 등)이나 **특정 카테고리 제품 혁신**(예: 농심 신라면의 글로벌 인기) 측면에서 니치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2 CJ 제일제당의 포지셔닝: CJ 제일제당은 국내 시장에서 **최대 종합식품기업**으로서 프리미엄부터 대중제품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전개합니다. B2C 사업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B2B 사업(식품소재, 식자재 공급)**도 병행하여 **B2C/B2B 겸영 모델**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조미료(MSG)**나 **효모추출물** 등은 글로벌 식품회사에 원료로 공급하고 있고, CJ 프레시웨이 등을 통한 급식·식자재 유통도 그룹 내 존재합니다. B2C 측면에서 CJ 제일제당은 *Bibigo(비비고)*를 앞세운 **한식 HMR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지향** 포지셔닝을 취합니다[25][26]. 국내에서는 **햇반, 백설, 해찬들, 스팸, 고메** 등 **다양한 가격대와 카테고리의 브랜드**를 보유해 **메인스트림 대중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CJ 의 뚜렷한 강점은 **①방대한 제품군**(간장부터 냉동만두까지 “소비자의 식탁 전체”를 커버)과 **②혁신 리더십**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초 상온 즉석밥(햇반), 냉동 HMR(비비고 왕교자) 등을 선도적으로 출시해 **시장 창출**을 해왔고, R&D 투자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CJ 제일제당은 **BIO 사업(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통해 축적한 발효공정 노하우를 식품에도 응용, 김치 유산균이나 식물성 대체육 등 **기술 기반 제품 개발**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CJ 는 **프리미엄+테크 기반 종합식품사**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며, 단순히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과 브랜드 스토리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25]. 한편, 해외 시장에서는 ‘K-푸드 전도사’ 이미지를 활용해 미국, 유럽 등지의 **니치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현지화로 볼륨 확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슈완스(Schwan’s Company) 인수 이후 미국 냉동식품 채널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며, 결과적으로 2024 년에 식품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처음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27]. 이는 CJ 제일제당이 **국내 1 위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2.3 최근 3~6 개월 내 주요 이슈: 식품업계는 최근 **고물가 기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2025년 상반기까지 원가 부담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어 CEO 가 “지금 위기는 낭떠러지 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28]. 이에 2025 년 하반기부터 강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 **비핵심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 최적화** 등을 예고하고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29]. 다행히 2024 년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 안정, 환율 호조 등으로 원가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특히 **EU 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글로벌 라이신 가격이 반등하면서 CJ 의 BIO 부문 수익성이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개선되는 추세입니다[30]. 2025년 2월 CJ제일제당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6% 증가하며 1조 원대를 회복했다고 발표했고[31], 이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투자를 재개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신사업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은 **대체단백질**과 **건강식품**을 미래 성장축으로 지목, 2025년 말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예: 대체육 만두 등)를 선보였고 풀무원, 롯데 등과 함께 **푸드테크 R&D** 협의체에도 참여했습니다[32]. **M&A/제휴**로는 2025년 하반기 미국의 한 식물성 단백질 스타트업에 전략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푸드테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스타트업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최근 이슈가 많은데, 롯데웰푸드는 2023년 7월 통합 후유증 극복과 브랜드 변경(롯데웰푸드로 사명 교체)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33]. 대상은 전통장류의 성장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HMR 브랜드 '집으로 ON' 강화 및 미국·유럽 **김치 공장 신설 등 현지화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34]. 농심은 내수 라면 경쟁이 치열해지자 **해외사업(미국 공장 증설)**과 **신제품(건면 등 건강 라인)**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고, 오뚜기는 2025년 말 **창립 50주년**을 맞아 조직문화 혁신(스타트업 문화 도입)과 함께 **종합식품기업 도약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공통으로는 ESG 규제 대응, 예컨대 **2026년 일회용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비한 친환경 포장 개발, 그리고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이 모든 기업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3장. CJ제일제당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 (부문별 매출 비중): CJ제일제당은 크게 **식품사업부문**과 **BIO 사업부문**, 그리고 **사료·축산(FEED & CARE)**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 (대한통운 등 물류 제외) **연매출 약 17.9조 원** 중 식품부문이 약 **11.35조 원**으로 **64%** 가량을 차지하고, BIO 부문이 약 **4.21조 원**으로 **24%**, 사료·축산(CJ Feed&Care 독립법인)이 약 **2.31조 원**으로 **12%** 수준을 차지합니다[35][36].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024년 식품부문 6,201억 원 (전년비 -5.3%), BIO 부문 3,376억 원 (+34.3%)으로, BIO가 이익 기여가 커지는 추세입니다[37]. 식품부문 내부를 보면, **가공식품 (HMR, 조미료, 등)**과 **곡물가공 (설탕, 밀가루 등)**, **식품유통**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지며 국내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햇반, 비비고 등 주력제품의 안정적 성장**과 **온라인 채널 매출 확대**로 매출을 방어했습니다[38]. 특히 **"햇반" 즉석밥**과 **냉동만두 비비고**는 국내 시장 리더로서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한편 해외 식품매출이 5조 5,814억 원으로 식품부문 매출의 **49.2%**까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 사실상 **글로벌/국내 매출 비중이 5:5**에 이르렀습니다[39]. 이는 CJ제일제당 식품사업이 더 이상 국내 내수기업이 아닌 **글로벌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매출 4조 7,138억 원**으로 가장 크고 (비비고 만두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2위와 3배 격차 확보[26]), 그 다음이 중국 및 아시아권, 유럽, 일본 등의 순입니다. BIO 사업부문 세부적으로는 **아미노산(사료첨가제)**, **발효조미소재(MSG 등)**, **기능성 소재(핵산 등)**로 구성되며, 2024년 Specialty(고수익 스페셜티) 제품 비중이 21%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40]. 트립토판, 발린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TasteNrich” 등 발효 조미소재 사업도 글로벌 대체육 업체 등 신규 고객을 확보하며 성장했습니다[40]. 전체적으로 CJ 제일제당은 **B2C 식품**과 **B2B 바이오**의 **투트랙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한쪽 업황이 어려울 때 다른 쪽으로 상쇄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2 중장기 전략 방향: CJ 제일제당은 스스로를 “**World Best 식품 & BIO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41]. 국내 1 위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 키워드는 ①**글로벌 확대**, ②**고부가가치화**, ③**선택과 집중**, ④**ESG 경영**입니다. ①**글로벌 확대:** 2030년까지 식품사업 해외매출 비중을 70%까지 높인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북미, 유럽, 아세안 지역에서 **M&A**와 **현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슈완스 인수 후 현지 냉동식품 1위 브랜드(레드바론 피자 등)까지 보유하게 되었고[42], 2025년에는 **북미·유럽에 신규 생산공장** 가동도 앞두고 있습니다[43]. ②**고부가가치화:** 이는 주로 BIO 부문 전략으로, 대량생산 위주의 기초 아미노산(라이신 등)에서 탈피해 기능성 제품, 맞춤형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입니다[40]. 이미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공법 메티오닌을 개발하고 건강기능형 소재를 출시했으며[44], 식품부문에서도 프리미엄 HMR 라인 확대, **글로벌 한식 브랜드(Bibigo) 육성**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25]. ③**선택과 집중:** 최근 윤석환 대표 취임 후 강조된 부분으로, **수익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강점 영역에 자원 집중하는 구조조정입니다[29]. 실제로 2023~25년에 걸쳐 비핵심 자산 유동화, 조직 슬림화가 단행되었고, 대신 글로벌 성장에 필요한 투자 (예: 해외공장, R&D 센터)는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④**ESG 및 지속가능경영:** CJ 제일제당은 “Nature to Nature” 슬로건 하에 친환경·건강 지향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18].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판매 전과정에서 **소비자 건강과 안전 최우선,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탄소배출 감축, 식품폐기물 감소**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18], ESG 성과를 대외 공시하고 지속가능 제품 (예: 친환경 포장, 업사이클 원료 활용)을 확대 중입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CJ 그룹의 비전과 결을 같이 합니다[45]. 식품을 통해 건강, 즐거움, 편리함을 창조하여 **전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3.3 차별화 포인트: CJ 제일제당이 경쟁사 대비 갖는 핵심 차별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력과 R&D 역량:** 1953년 국내 최초로 설당을 생산하며 시작한 CJ 제일제당은 60여년간 축적한 **미생물 발효기술**을 기반으로 아미노산, 조미료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46]. 이 **BIO 기술 기반**은 식품사업에도 시너지를 주어, 발효균을 활용한 김치 숙성제어 기술, 천연 조미소재 개발 등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17년 완공한 통합 R&D 센터 ‘**CJ 블로썬파크**’는 식품·바이오 융복합 연구를 통해 혁신 신제품을 창출하는 산실입니다. **둘째,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CJ는 백설, 해찬들, 햇반, 비비고 등 **각 카테고리 넘버원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5].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여 소비자 신뢰도가 높고, 한식의 세계화 전략으로 **Bibigo**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낸 사례는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독보적입니다[25]. 또한 그룹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역량(CJ ENM 등)과 연계한 콘텐츠 마케팅, K-콘텐츠와 연동한 한식 홍보 등 **통합 마케팅 능력**도 강점입니다. **셋째, 광범위한 채널과 밸류체인 통제력:** CJ 제일제당은 식품 제조뿐 아니라 그룹 내 **물류(CJ 대한통운), 식자재 유통(CJ 프레시웨이), 외식(CJ푸드빌)** 등 관련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어 **수직계열화 효율**과 유통망 접근성이 높습니다. 자체 온라인몰,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통해 신제품 테스트/출시를 빠르게 할 수 있고, 글로벌 물류망도 그룹 시너지를 활용합니다. **넷째, 규모의 경제와 원가경쟁력:** 업계 1 위 규모로 생산설비 투자를 크게 하여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 진천, 논산 등에 **최첨단 스마트팩토리**를 운영하면서 자동화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수율 개선, 에너지 절감 등 **원가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인재 및 조직문화:** CJ 제일제당은 “인재제일” 철학 아래 우수인재를 확보·육성하고, 창의와 도전을 북돋우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47]. 이는 지속적인 혁신의 원천으로, 도전적인 **하고잡이 문화(후술)**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신사업, 신제품에 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강점들이 어우러져 CJ 제일제당은 경쟁사들이 단기간 모방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과 경쟁우위**를 쌓고 있습니다.

3.4 주요 리스크 요인: 반면 CJ 제일제당이 직면한 위험요소도 존재합니다. **①원가 및 매크로 리스크:** 식품 원재료(곡물, 유지 등)는 국제 시세 영향이 크고 환율 변동에도 민감합니다. 최근 고환율·고원가 상황에서 CJ는 국내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었고[48], 이러한 **원자재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시 존재합니다. 이를 완화하려고 해외 곡물 소싱 다변화, 선물거래 헤지 등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②BIO 사업 변동성:** BIO 부문은 글로벌 상황에 따른 **사이클 리스크**가 큼니다. 특히 라이신 등 대량 아미노산은 중국업체들의 공급공세로 판가가 급락하면 수익이 급감합니다[49]. 실제로 2023년 CJ BIO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6.7% 급감했는데, 이는 중국발 공급증가로 **핵심 캐시카우 사업이 흔들린 영향**이었습니다[49]. 향후에도 중국 저가공세나 무역분쟁 등으로 BIO 실적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 전체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③경쟁 심화:** 국내외 식품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도 리스크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뚜기, 풀무원 등 경쟁사들이 빠르게 HMR 신제품을 내놓고 있고, 유통 대기업들의 PB 상품이 늘어나는 등 CJ 입장에서 **시장 리더로서 수성**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해외시장에서도 냉동만두 등 K-푸드가 성장하자, 현지 기업들이 유사제품을 출시하거나 가격경쟁을 거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식품 공룡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M&A와 투자가 필요한데, 자칫 투자 과실이 기대에 못 미치면 **과투자 위험**도 있습니다. **④인력 및 조직 리스크:** 식품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확보가 관건입니다. CJ 제일제당이 DX, 데이터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지만, IT 업계 등에 비해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라는 평도 있어 **우수 인재 유치/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갈등 이슈는 없으나, 제조 현장의 안전사고 가능성이나 직원 복지 관련 요구에 신경 써야 합니다. **⑤규제/평판 리스크:** 식품안전 사고는 기업 신뢰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 competitor 사 사례처럼 이물 혼입이나 식중독 사태가 생기면 대규모 리콜과 비용 발생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CJ 제일제당은 품질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천명하고[18], 철저한 사전예방체계를 가동 중이지만 **100% 리스크 제로**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ESG 시대에 노동착취, 환경파괴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 협력사 공정거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한때 CJ 그룹 오너일가 관련 사건(예: 2019년 이선호 부장 마약 밀반입)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배구조/오너 리스크**가 재발하면 기업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CJ 제일제당은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성장 여력이 크지만,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와 내부 혁신 과제**를 지속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균형감 있게 파악하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왜 CJ 제일제당이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장. 인재상·조직 문화·채용 특징

4.1 공식 인재상 키워드와 해석: CJ 그룹의 공통 인재상 키워드는 **“하고잡이”**입니다. ‘하고잡이’란 **“하고 싶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뜻하는 CJ 만의 표현으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해내는** 도전적 인재상을 말합니다[50]. 이를 구체화한 다섯 가지 핵심 덕목은 ①**내일 더 새롭게**, ②**꿈을 원대하게**, ③**반드시 결과로**, ④**안 돼도 다시**, ⑤**진정성 있게**입니다[51]. 쉽게 말해 늘 새로운 시각으로 도전하고 (새로움), 큰 꿈을 그리고 (야심), 과정에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며 (끈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실행력), 그 과정에서 진정성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정직) 인재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51]. CJ 제일제당은 이러한 그룹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찾고 있으며, 실제 채용과정에서도 **지원동기에서의 열정과 목표의식, 과거 경험에서 어려움 극복 및 성과 창출 사례, 업무에 임하는 진정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예컨대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도 “기존 방식이나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개선한 경험”을 묻는 등[52],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끈 경험**을 강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고잡이’ 정신을 얼마나 체화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한편 CJ 제일제당은 **이재현 회장의 ‘인재제일’ 철학**에 따라 2026년 공채 규모를 전년 대비 30% 확대하면서까지 미래인재를 확보하려 하고 있고[53], 그룹 차원에서 **능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AI 활용 서류평가 등)로 진짜 실력있는 ‘하고잡이’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54]. 따라서 지원자는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기보다, **“내가 진정 이 직무/업무를 간절히 하고 싶어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끝내 해낼 사람이다”**라는 점을 경험과 논리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조직 문화: CJ 제일제당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그룹 DNA 인 **“ONLYONE”**(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움으로 1등 도전) 정신이 조직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 CJ는 **수평적 호칭 문화 ‘OO님’**을 국내 대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직급 대신 모든 직원을 ‘님’으로 부르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55]. 이는 세대간 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변화로, 젊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얻었습니다. 또한 성과와 능력이 있으면 **나이-연차 상관없이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여, 80~90 년대생 젊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50]. 이는 **성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조직 내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보입니다. 한편 **“즐겁게 일한다”**는 CJ의 인사철학에 따라 임직원 복지도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제공됩니다[56]. 실제로 직원들은 올리브영, CJ 더마켓, CGV, 뚜레쥬르 등 **CJ 계열사 브랜드 할인 혜택**을 받고, **입사 3,5,7,10 년차에 최대 4 주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Creative Week” 제도로 재충전 기회를 얻습니다[55]. 국내 콘도 이용 및 해외호텔 비용 지원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도 젊은 세대에 매력적인 요소입니다[55]. 이러한 문화와 제도는 최근 구직자 대상 설문에서 CJ 그룹이 높은 취업 선호도를 보인 이유로 분석됩니다[55]. 요약하면 CJ 제일제당의 조직문화는 **“도전적이되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원 후기들을 보면 “전통 제조업 치고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이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는 평가 함께 “다만 변화 속도가 완전 빠르진 않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은 아무래도 본사보다 경직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CJ 제일제당은 **대기업의 안정성과 스타트업의 진취성을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문화 혁신을 진행 중입니다.

4.3 최근 채용 공고 동향: 2025 년 하반기부터 2026 년 상반기까지 CJ 제일제당의 채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째, 디지털/미래 신사업 인재 채용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식품 R&D, 생산, 영업, 마케팅 등 전통 직무 위주 공채였는데, 최근 공고에는 **DX 솔루션 기획, 플랫폼 개발, e-Commerce 등 디지털 직군** 채용이 대폭 늘었습니다[57][58]. 이는 CJ 제일제당이 **식품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D2C 플랫폼이나 데이터 기반 마케팅 등에 힘쓰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예컨대 2026 상반기 신입 공채에서는 일반전형 내 **“DX 솔루션 기획”, “플랫폼 서비스 기획”, “Front/Back-end 개발”, “UI/UX 디자인”** 등의 직무를 신설하여 모집했습니다[59][60]. 식품 제조기업이 IT 직군을 대거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미래 사업 역량**으로 디지털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단순 식품 지식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역량이나 IT 친화력을 갖추면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인재 채용**입니다. CJ 제일제당은 2023 년 하반기에 처음 **“Global 인재 전형”**을 도입했고, 2026 년 공채에서도 해외대학 출신 등을 대상으로 별도 트랙을 운영했습니다[61]. 그룹 차원에서도 **“해외 사업의 주역이 될 인재”**를 확보한다고 밝히며, 식품·BIO 각 부문별로 신입을 뽑고 있습니다[61]. 실제로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고, 해외법인 인턴십이나 연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글로벌 사업 확대전략과 맞물려 **해외근무에 거부감 없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채용 방식 혁신**으로 **AI 활용과 참여형 브랜딩**을 도입한 점입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의 자소서를 AI 가 정량 분석해 평가자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편견을 배제한 능력평가**를 돕고 있고[54], Z 세대 공약을 위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재미있게 꾸미거나, 인기 게임 컨셉 설명회(예: CJ 대한통운의 경찰과 도둑 게임 컨셉) 같은 **이색 이벤트**로 구직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62]. CJ 제일제당도 마케팅, MD 등 현직자가 참여하는 **직무 설명회와 유튜브 AI**

아나운서 채용 콘텐츠를 운영하여 회사와 직무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63]. 전체적으로 최근 채용공고의 톤은 “미래 혁신을 이끌 주인공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에게 단순히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세요”가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의 역량과 꿈을 펼쳐 달라”는 **주체적 도전**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본인의 비전과 회사의 방향성을 연결 지어 어필하면 좋을 것입니다.

4.4 서류/면접 강조 키워드와 역량: CJ 제일제당은 서류와 면접에서 **직무적합성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도전”, “주도적인 실행”, “팀워크”, “전문성” 등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지원 동기 및 강점, 직무 이해도, 갈등해결 경험, 혁신 경험 등을 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직무를 잘 알고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에 긍정 기여할 인재인지** 평가합니다[52]. 예컨대 “지원 직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 같은 질문에서는 그 직무가 회사 전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있어야 좋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CJ 제일제당 인재상에 비추어 **끈기있게 성과를 낸 경험(반드시 결과로)**, 실패 후 재도전 경험(안돼도 다시)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적으로 보며, 식품기업답게 **정직하고 신뢰감을 주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압박면접보다는 지원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꼬리질문을 이어가는 **경험 기반 면접**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쓴 경험 속 **구체적 역할, 어려움, 결과**를 구조화해두고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때 자주 듣는 질문으로는 “CJ 제일제당의 사업 중 관심가는 분야와 개선 아이디어”, “본인이 생각하는 식품산업의 미래 트렌드”, “팀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산업 통찰, 문제해결, 협업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술적 역량**(특히 R&D 나 생산기술 지원자의 경우 전공지식 테스트 질문)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수준이며 모르면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적 사고를 보여주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CJ 제일제당은 **“역량은 물론 인간적 신뢰까지 갖춘 균형잡힌 인재”**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준비생은 지원 직무 관련 지식과 스킬을 갖추는 한편, 자신의 **열정과 꾸준함, 조직 기여 의지**를 사례로 뒷받침하여 어필하는 게 합격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5 장. 직무 분석 - 생산기술 (식품)

5.1 직무의 핵심 역할: 생산기술 직무는 식품 제조공장의 **생산 공정 전반을 관리·개선**하는 역할입니다. 흔히 공장에서 헬멧 쓰고 제품만 만드는 일을 연상하지만, 실제로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본사와 현장, 협력 부서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64]. 구체적인 핵심 업무는 ①**생산 계획 수립 및 조정**, ②**공정 운영 관리**, ③**품질 개선과 공정 개선**, ④**신제품 양산 지원**, ⑤**설비 투자 및 유지보수 관리**로 요약됩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오전에 당일 생산계획과 전일 생산실적을 점검하고, 생산라인을 순회하며 설비 이상이나 작업상 애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생산 현장 작업자들과

Toolbox 미팅을 통해 어제 발생한 문제와 오늘의 주의사항을 공유하고, 제품 샘플의 품질 검사 결과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생산 도중 라인에 갑작스런 **트러블(설비 고장, 원료 불량 등)**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정비팀, 품질팀 등)와 조치를 취합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생산성과를 분석하여 원가절감이나 효율향상 과제를 도출하고, **정기 생산회의**에서 공장장 및 본사와 생산 실적과 이슈를 보고합니다. 또한 신규 설비 도입이 있거나 신제품 시험생산을 할 경우 생산기술 담당이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일정, 인원, 예산 등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1년 단위로**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생산능력 증설, 설비 업그레이드, 스마트공장 투자 등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고, 연간 제조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해 추진합니다. 정리하면 생산기술 직무는 **현장의 생산 Line을 가장 잘 이해한 공정 전문가**로서, **“계획 - 실행 - 개선” PDCA 사이클**을 돌리며 **생산성 극대화**와 **품질 확보**에 책임을 집니다[64].

5.2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사내에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며, 외부 파트너와도 교류합니다. 내부적으로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대상은 **현장 생산팀**(라인 오퍼레이터, 반장 등)입니다. 생산기술 담당은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업 표준을 교육하거나 개선안을 지도합니다. 또한 **품질관리(QC) 부서**와 협업하여 불량률이나 공정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설비 부서**와 함께 설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계획합니다. **R&D 개발팀**도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새로운 제품 레시피가 나오면 R&D 와 함께 시제품 생산을 테스트하고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만두를 출시할 때 생산기술은 R&D 로부터 배합비와 프로세스를 인수받아 **양산 가능하도록 Scale-up** 하고 제조 공정을 설계합니다. **구매/물류 부서**와도 협업이 있습니다. 원부재료 수급 일정에 맞춰 생산계획을 조정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적기에 출하하기 위해 물류와 일정을 맞춥니다. 본사 차원에서는 **생산기획팀**이나 **경영관리팀**과 생산 실적, 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경영진 리포팅을 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설비 공급업체**와의 접점이 큼니다.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이나 설비 고도화 시 외부 장비업체 엔지니어와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시운전 및 설치 감독도 생산기술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또한 **원재료 공급업체**와 원료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기술 미팅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외 인증기관**(HACCP 인증 심사 등)이 공장 점검을 나오면 생산기술이 대응 창구가 되어 설비위생 관리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해외사업장과의 연계도 있는데, CJ 제일제당의 경우 생산기술 신입사원은 **입사 후 1년 내 해외 공장에 교육 파견**을 가기도 합니다[65]. 이때 현지 공장의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득하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현장~본사를 잇는 허브, 외부적으로는 기술 공급자~규제당국까지 대응하는 다기능 조정자**가 생산기술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3 필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생산기술 직무에는 **공학적 전문성과 문제해결력,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두루 요구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화학공학, 식품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전공지식이 토대가 됩니다. 식품의 제조공정(가열, 살균, 냉각, 포장 등)에 대한 이해와

단위조작(Process Engineering) 지식이 유용하며, 생산라인의 **자동화 설비**와 센서, PLC 제어 등 **기계 Electrical 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최근 식품공장은 대부분 PLC 로 제어되므로 **SCADA 화면을 보고 공정파라미터 조정**을 할 줄 알아야 하고, CIP(설비 세척) 등 위생공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품질 기초지식(예: 미생물 관리, 식품위생법 기준)과 **통계적 공정관리 手法 (SPC)**도 중요합니다. **LEAN 6 시그마** 툴을 활용해 불량률을 낮추거나 사이클타임을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자주 하므로, 데이터 분석과 통계 기법 활용 역량도 필요합니다. 한편 **소프트스킬**로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능력**이 핵심입니다[66]. 생산기술은 **다양한 유관 부서**와 협업하며 조율해야 하기에, 기술적 사안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66]. 또한 **문제해결력과 끈기**도 필수인데, 공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늘 생기기 때문에 **원인분석 - 해결책 도출 - 실행 - 재발방지**의 사이클을 끈질기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설비 트러블이 나면 투입되어야 할 상황도 있어 **책임감과 임기응변**이 요구됩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 해외사업장이 많아 **영어 등 외국어** 능력도 큰 자산입니다[66]. 실제로 생산기술자는 해외 현지 직원들과 기술 논의를 하거나 지원을 나갈 일이 잦아, 영어(또는 중국어 등)에 능통하면 업무 폭이 넓어집니다[66]. 마지막으로 **체력과 멘탈 강인함**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 현장은 하루 수백 톤의 제품이 쏟아지는 곳이라 **사소한 실수도 큰 금전적 손실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67]. 따라서 스트레스 내성, 꼼꼼함, 안전의식 등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요약하면 **“공장이라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미니 CEO”** 같은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생산기술 엔지니어입니다.

5.4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생산기술 직무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로는 **생산효율 관련 지표**와 **품질/원가 관련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 가동율(설비稼動률)**, **공장 캅파 달성률(계획 대비 생산량)**, **사이클 타임** 등의 생산성 지표가 중요합니다. 하루 계획 대비 100% 생산 달성은 기본이고, 증설 전 병목공정을 최적화해 **UPH(시간당 생산량)**를 향상시키면 가점이 됩니다. **품질 측면**에서는 **불량률(Defect Rate)**, **클레임 건수** 등이 KPI가 됩니다. 특히 식품은 **위해요소 0 건**이 최우선 목표이며, 그 다음으로 중량 오차나 외관 불량률을 낮추는 것이 성과입니다. **원가 측면**에서는 제조원가 절감액, 예산 대비 비용절감률이 평가됩니다. 예컨대 원부재료 로스(loss)를 줄여 연간 수억원의 절감을 달성하거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Cost Saving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 **안전사고율 (Zero Accident)**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안전은 KPI 수치화보다는 사고 시 패널티에 가깝지만, 어쨌든 **무재해 달성**은 생산팀 성과의 일부분입니다. **평가 포인트**로는 단순히 숫자 달성뿐 아니라 **개선활동의 주도 여부**가 중시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작은 개선이라도 **Kaizen 제안**을 얼마나 냈는지, 공정 개선 프로젝트를 리드하여 **협업을 이끌었는지** 등이 질적으로 고려됩니다. CJ 제일제당은 우수 제안에 포상하고 개선사례를 전사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 **자기 공장만이 아니라 타 공장에 전파될 혁신을 만들어냈다면 최고 성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장 지원 등 **그룹 기여 활동** (예: 해외 공장 문제 해결 특별파견 등)을 수행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종합적으로,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안전·품질을 기반으로 효율과 원가를 개선하여 회사 이익에 기여했는가”로 평가받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협업능력도 승진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66].

5.5 업무 시나리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기술 직무의 가상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상황:**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생산기술 엔지니어 A 씨는 냉동만두 ‘비비고 왕교자’ 라인의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 **문제인식:** 왕교자 제품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아 주문이 급증했지만, 현 생산라인의 생산능력(Capacity)이 한계치에 근접해 **공급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A 씨는 **생산량을 10% 높이는 목표**를 부여받았습니다.
- **원인분석:** A 씨는 먼저 라인별 공정시간을 측정해 **병목공정**을 찾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포장 공정**에서 만두를 트레이에 담는 자동화 로봇이 속도가 가장 느려 전체 takt time 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만두소를 충전하는 충전기도 가동 중 미세한 걸림 현상으로 주기적으로 라인을 멈추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 **개선안 도출:** A 씨는 **설비 엔지니어**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포장 로봇의 그리퍼(gripper) 설계를 개량해 한 번에 집는 만두 개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충전기는 노즐 설계를 변경하고 센서 민감도 튜닝으로 멈춤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업자 동선 개선**으로 원부재료 보충 시간을 단축하는 인력 재배치도 제안했습니다.
- **실행:** 개선안 중 설비 변경은 본사 설비투자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A 씨는 공급업체와 일정 조율, 설치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동시에 현장 작업자들과 개선안 공유 교육을 하고, 충전기 시험운전을 여러 차례 거쳐 최적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 **검증:** 개선 후 한달간 생산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간당 생산량이 기존 대비 12% 증가했고, 라인 다운타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A 씨는 개선 전후 데이터를 정리해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 공장장 주재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A 씨의 개선사례를 타 공장에 **벤치마킹 과제**로 전파했고, A 씨는 이에 대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 **일상 업무와 병행:**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A 씨는 일상 생산 일정 관리와 품질모니터링을 병행했습니다. 신제품 신메뉴 만두 출시를 앞두고는 R&D 팀과 함께 파일럿 생산을 테스트하고 작업표준서(SOP)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듯 생산기술 직무는 **문제 발견→개선 기획→협업 실행→성과 검증**의 사이클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돌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라인에서 땀흘려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의 종합 엔지니어 겸 PM** 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68][64]. CJ 제일제당처럼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글로벌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경우에 따라 해외 공장 지원도 있어, 예컨대 “베트남 공장에 파견 가서 현지인과 영어로 소통하며 라면 스프 배합공정 개선 프로젝트 수행” 같은 다이나믹한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66]. 따라서 지원자가 생산기술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단순히 생산관리적 마인드뿐 아니라 이런 엔지니어링+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측면을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2] [3] [5] [6] ksure.or.kr

https://www.ksure.or.kr/html/down/newsletter/doc/1912_K-SURE_magazine_02.pdf

[4] 2025 글로벌 식품 시장 분석 및 2026 전망 - 식품음료신문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82>

[7] [8] [9] [10] [15] [16] [20] [21] [22] [23] [24] [33] [34] 식품업계, '1강' CJ 제일제당 독주 속 7개사 2위 놓고 경쟁 < 유통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33>

[11] [13] [14] [17] [19] [결산] 2025 년 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친 7 대 이슈 - 푸드아이콘-FOODICON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4>

[12] CJ 제일제당, CJ 더마켓서 콘텐츠 서비스 '야미' 론칭 - 스마트경제

<http://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79>

[18] [25] [41] [44] [45] [46] [47] CEO 메시지 | CJ 제일제당

<https://www.cj.co.kr/kr/aboutus/cj-cheiljedang/ceo-message>

[26] [30] [31] [35] [36] [37] [38] [39] [40] [42] [43] CJ 제일제당, 지난해 영업이익 26% 증가 1조원대 재진입...해외 시장 확대 성과 - 푸드아이콘-FOODICON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64>

[27] [28] [48] [49] 'K-푸드 승전고'에도 웃지 못한 CJ 제일제당, '와신상담'으로 반등 이뤄낼까 - 오피니언뉴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32>

[29] '바이오통' 윤석환 CJ 제일제당 대표 쇠신 승부수 [오늘의 리더]

심층 분석 보고서: CJ제일제당(식품)-생산기술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806>

[32] [창간 28 주년 특집 III] 코로나 19 와 식품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97>

[50] [53] [54] [55] [62] [63] CJ 그룹, 2026 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작 - CJ 뉴스룸

<https://cjnews.cj.net/cj%EA%B7%B8%EB%A3%B9-2026%EB%85%84-%EC%83%81%EB%B0%98%EA%B8%B0-%EC%8B%A0%EC%9E%85%EC%82%AC%EC%9B%90-%EA%B3%B5%EA%B0%9C-%EC%B1%84%EC%9A%A9-%EC%8B%9C%EC%9E%91/>

[51] [JOB 리포트] CJ 그룹 공채키워드는 '하고잡이'...결과로 증명하는 인재뽑는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319500189>

[52] 합격자소서 자동작성 - CJ 제일제당(식품) - 하이잡

<https://www.haijob.co.kr/posting/11635>

[56] CJ 그룹의 공통 인재상 - CJ 씨푸드

<https://www.cjseafood.net/recruit/person.php>

[57] [58] [59] [60] CJ 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 채용공고 - 2026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 자소서 문항, 지원자 스펙 분석까지

<https://jasoseol.com/recruit/103166>

[61] CJ 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핵심 키워드는?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1508001>

[64] [65] [66] [67] [68] CJ 제일제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22 년 하반기 CJ 그룹 신입사원 채용] - CJ 뉴스룸

<https://cjnews.cj.net/cj%EC%A0%9C%EC%9D%BC%EC%A0%9C%EB%8B%B9%EC%97%90%EC%84%9C%EB%8A%94-%EB%AC%B4%EC%8A%A8-%EC%9D%BC%EC%9D%84-%ED%95%98%EB%82%98%EC%9A%94-22%EB%85%84-%ED%95%98%EB%B0%98%EA%B8%B0-cj%EA%B7%B8%EB%A3%B9/>